□영화평 — 우리시대의 사랑

생산성 없는 외설만 화면 가득

억압으로 빚어진 광기 그린 원작의도 못살려

나는 여러가지 이유로, 극장을 찾아가 영화를 보는 것보다 방안에 틀어박혀 비디오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그리고 올해 8월은 또 몇가지 이유로 해서 비디오에 신들린 것처럼 비디오를 꺼고 살았다. 영어로 이런 사람을 '비디엇(Video+idiot)'이라고 한다는데, 정말 걸핏하면 쏘고, 찌르고, 부수고, 벗고, 뒹굴고 하는 영화만 보다 보니 머리속이 홰~엥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 신문의 영화광고를 보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영화가 몇가지 있었는데 '우리시대의 사랑'이 그중 하나였다. 그저 그것이 아직도 개봉중이라는 사실을 애석해하며 '나중에 비디오로……'하던 차에 어떤 계기로 결국은 그걸 보게 되었다.

'우리시대의 사랑'은 조성기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자유종'의 작가 김수경씨가 각색하고 '접시꽃당신'등을 만든 박철수씨가 감독한 영화이다.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면 '외설논쟁은 반드시 생산적이어야 한다', 'sex, 존재, 노출'등의 문구가 있고 이것이 어떤 오해를 빚을 수도 있겠는데 원작 '우리시대의 사랑'은 '야한'소설이 아니다. 나도 사실 원작소설을, 책의 뒷표지에 적혀있던, '성과 사랑의 경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어디쯤 그 경계가 있는 것인지.'하는 '작가의 말'로부터, 이건 뭔가 색다르겠군, 하는 어떤 불순한 기대감을 가진채 읽었었다. 그렇지만, 소설 속에는 내가 많이 기대했던 적나라한 성애 묘사보다는(이것은 전체적으로 한쪽 쯤의 지면에 그 몫이 할애돼 있다.) 학구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넓게는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좁게는 이오네스코의 '외로운 남자', 마줄스키 감독의 영화 '처, 그리고 사랑이야기', 이집트의 신화등의 전거로 한 우리시대의 사랑행태에 대한 분석이 주인공인 연극연출가의 입을 빌어 서술돼 있었다.

내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실망은 적지 않았지만, 우리의 정신활동 기저에 있는, 그리고 사랑과 성이라는 가장 은밀할 수도 있는 행위에서도 드러나는, 노출증과 자폐증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참신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책을 읽은 당시의 독후감이었다. 뭐라던가? 권위, 억압으로 빚어진 자폐증세는, 그래서 더욱 커지는 표현욕구를 노출증으로 해결하게 된다는 거였던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불화와 광기의 드라마, 연극연출가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발기불능증세,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흔들며 쾌감을 느끼는 전직 교사……. 이 모든 경우가 자폐증과 노출증의 두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 병리학적 증세들이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몇 군데는 무슨 논문을 읽는 듯한 느낌도 있었던 소설이었지만 야하게 영화화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한 소설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원작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의 은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영화를 보았다. 보고난 느낌? 그저 그랬다. 우선 야한 걸로 따지면, 이 영화는 여주인공의 자위행위를 포함해서 좀 희귀한 장면들을 담고 있는데, 본격 포르노는 접어두고 야하기로 소문난 온갖 영화들을 섭렵한 눈에는 대체로 눈과 귀에 익은 것들로서, 나와 같이 갔던 남자선배는 서로 쑥스러움을 느낄 법도 한 그런 장면들 앞에서 그저 백치같은 웃음만 히히 낄낄 흘리게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외설논쟁'을 일으킬 만한 새로움이 없었다.

sex를 빼고 이 영화에서 남는 것? 뭔가 있을 것이다. 얼핏 '아담의 사다리'를 연상시키는 가상과 현실의 병치, 영화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한참 웅얀 두루두루 보여지는, 뭔가 상징적임에 틀림없는 쓰레기통인지 정화조인지의 내부풍경…… 나는 솔프게도 볼 수 없었지만 '진짜' 영화광들의 눈을 통하면 열광적인 이야기의 소재가 될 법한 요소가 분명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서라도 이 영화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를 들게 되면, 다시 한번 비디오로 rewind도 시켜가면서 곰곰히 뜯어보리라는 마음이 한편 든다.

사실 솔직히 나는 더빙된 성우들의 목소리가 너무 우습고 귀에 거슬려서 짜증이 날 지경이었기 때문에 영화에 잘 몰두할 수가 없었다. 극장을 나오면서 선배에게 '이거 포스트모더니즘인가?' 하면서 뭔가 황당한 느낌을 얼버무리기도 했지만, 마음 속 깊이서는 동시녹음을 안하는게 기술부족일까? 뭘까? 하는 궁금증인지 회의인지가 일고 있었고, 그래서 괜히 고개를 휘휘 저었다.

이선주
〈문리대 영문 94졸업〉

□도서관 전면금연 학생들 반응

"조용하고 깨끗…백번 잘한 일"

흡연자도 찬성 "하지만 흡연공간 있었으면…"

"도서관 금연요? 그거 백번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우선 도서관이 얼마나 깨끗해 졌는데요. 공기도 나아지고, 사람들이 복도에서 서성이지 않으니 조용하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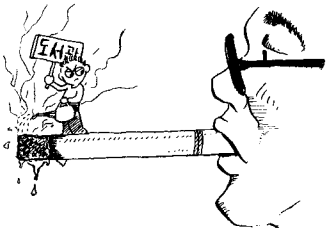
도서관 완전금연에 대한 오양(영교 4)의 생각이다. 도서관 금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도서관 앞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 보았다. 도서관안에서 흡연이 완전히 금지되자 도서관 앞에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로 붐볐다.

도서관내 완전금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찬성이었다.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일단은 찬성했다. 김군(경영 4)은 이제 도서관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는 분위기가 일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금연을 실현하려면 적당한 흡연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권군(부역 3)의 생각은 보다 구체적이다. 그는 도서관 3층 '참고열람실'의 뒤편을 지적한다. 그곳 베란다에 위험하지 않게 난간을 설치하고 출입문만 단다면 적격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장 조상대(부역 88)군은 생각보다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고맙게 여긴다며 도서관내 금연운동을 좀더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서관 주변에 흡연지역을 설치하여 차양을 치고 재떨이도 더 구비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금연운동을 좀더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서관 주변에 흡연지역을 설치하여 차양을 치고 재떨이도 더 구비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금연운동 외에도 도자위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타대생 도서관 이용금지와 1인 1좌석제, 책걸상 교체, 휴게실 꾸미기, 화장실 환기통 달기 등이다. 설비에 대한 것들을 학교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학교가 도자위에 잘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얘기하기도 했다.

현재 자치위원은 모두 9명. 이들은 모두 평점 4.0이 넘는 고야말로 도서관 붙박이들이라고 한다. 이 터줏대감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정말 공부할 만한 도서관'에는 무엇보다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貞〉

객석

영교과 '좋은의사' 공연

영어교육과 영어연극부(KEPA)는 스무번째 정기공연으로 날 시몬의 '좋은 의사'를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오후 2시, 5시 모두 네차례 A.V. 센터에서 상연한다(연출 유지욱). '좋은 의사'는 옴니버스 형식의 코미디물이다.

문밖사람들 '웃음…' 공연

문리대 연극부 '문밖사람들'은 열여덟번째 정기공연으로 잭 리처드슨의 '웃음 넘치는 교수대'를 학생회관 4층 '여백'에서 오는 8일과 9일 오후 5시 30분, 10일 오후 1시, 4시에 상연한다. '웃음 넘치는 교수대'는 질서의 세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코믹하게 그렸다.

신방과 '불 좀…' 공연

신방과 연극부는 여덟번째 정기공연으로 이만희씨의 '불 좀 꺼 주세요'를 5일, 6일 오후 5시 30분, 크라운관에서 상연한다(연출 이양황). '불 좀 꺼 주세요'는 제도적인 사랑과 본능에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이중성을 그린 작품이다.

모들 '꿈꾸는 기차' 공연

극단 모시는사람들(모들)은 유지철 '꿈꾸는 기차'를 지난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바탕골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꿈꾸는 기차'는 비무장지대에 녹슨채 멈추어 있는 기차를 통해 분단현실과 통일에 대한 갈망을 노래한다.

(공연장 745-0745)

□새로 나온 책

'통일은 됐어' 김지형·김민희 씀

문익환 목사의 통일역정 그려

낙관과 신심의 '통일군 할아버지', 고 문익환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책.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4·2공동성명, 연방제 3단계통일론 분석과 편지등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그의 통일역정과 사상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민족시인이기도 했던 그의 시와 작고 전 남긴 유지를 통해 통일에 대한 변하지 않는 열정을 살펴볼 수 있다.

— 지성사/5천8백원

'끝나지 않은 전쟁' 라종일 씀

한국 전쟁에 새로운 접근

냉전시대 시각 편차로 인한 다양한 분석으로 규명되지 못한 한국전쟁에 대해 올바른 시각정립을 위한 학술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강연된 바 있는 열여섯 편의 논문과 강연내용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전쟁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 분석과 북한 역류자 체험 보고서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한국전쟁을 재조명하고 있다.

— 전예원/8천원

□진시황 서울전

2천3백년만에 깨어난 황제의 꿈

신비의 도용·도마 등 최초로 소개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 '세계의 여덟번째 불가사의'로 불리우며 최고의 찬사와 놀라움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진시황 지하궁전의 유물이 서울에서 전시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신비의 진품 도용(陶俑)과 도마(陶馬)를 비롯하여 세계최초로 공개하는 진대(秦代)의 황금칼등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유물 1백5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돼 역사학도, 미술사학도, 고고학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중국 고대인들의 영혼과 꿈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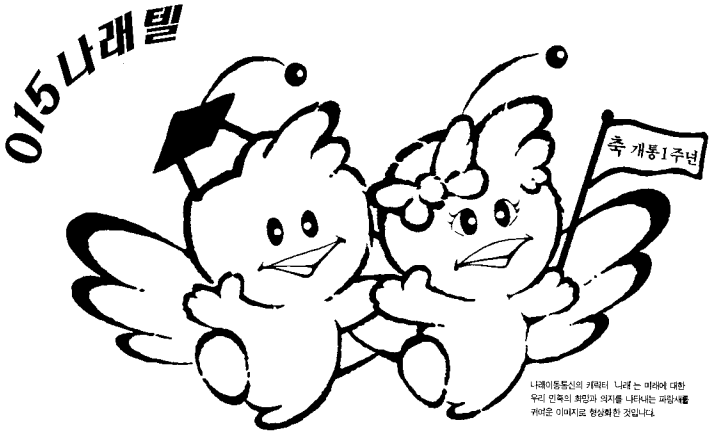
1974년 중국 섬서성 임동현에서 농부들이 우물을 파던중 곡괭이질에 의해 유물 몇가지를 발견한 것이 바로 '금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의 서막이었다. 8천이 넘는 테라코타 병사와 말, 그리고 전대의 수많은 유물이 매장되어 있는 이 위대한 진용갱은 시황릉과 함께 198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74년 1호갱 발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목제전차 20여대, 전차마 29마리, 각종 무사 도용 1천4백여점, 청동병기 1만여점 이상이 출토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발굴이 진행중이라니 그 규모에 놀랄 만 하다.

병마용갱은 불노불사(不老不死)를 꿈꾸었던 진시황이 사후에도 영원한 황제를 꿈꾸며, 자신이 머무를 화려한 궁전과 함께 자신을 보호할 막강한 지하군단을 30여년동안 70만명의 인부를 동원해 만들고 자신의 죽음과 함께 지하에 묻히게 된것이다. 말하자면 지하용갱은 진시황의 영혼을 지키는 군대인 것이다.

황금과 백금으로 된 3천4백여점의 부속품들로 장식된 신시황의 청동마차는 2천3백여년이 지난 지금도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 현대의 과학기술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대의 화폐와 각종 의복 장신구, 그릇, 솥 등이 함께 전시되어 그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진용갱 내부를 촬영한 대형사진들도 큰 볼거리다. 또 병마용갱 내부에서 출토된 흙으로 빚어 독특한 향기가 배어있는 모형 도용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2천3백년만에 지하궁전에서 깨어난 진시황의 꿈인 이번 '진시황 서울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경복궁내 구 민속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이준희(철학 4)



나래이동통신의 캐릭터 나래는 미래에 대한 우리 민족의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파랑새를 귀여운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축 개통1주년

안녕하세요!
우리 캠퍼스에서 만나요

다정한 내친구
015 나래텔
더욱 가깝게
더욱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감도 세대를 위한 고감도 삐삐
이제 캠퍼스에서 쉽게 만나보세요.

■ 015 나래텔 개통 1주년 기념 대학 순회 A/S ■
• 기간 : 9/1~9/14
• 일정 : 각 대학 창약 대행점에 문의

▶ 015 나래텔 경희대 창약 대행점
[서울] 크라운관 2층 문방구 ☎ 966-2419 [수원] 학생회관 1층 복사점 ☎ (0331) 282-6976

015 나래텔
나래이동통신
대표전화 : (02) 3633-015 상담문의(고객의견센터) : (02) 3633 015